

방탄소년단, 석달만에 또 빌보드 정상 정복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에서 두 번째 정상을 차지하며 다시 한 번 K팝 역사를 갈아치웠다. 앨범을 낼 때마다 자체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한국

최초의 빌보드 정복을 한 해에 거꾸 두 번이나 해냈다. 3일 최신 차트를 미리 소개한 빌보드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발매된 방탄소년단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는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지난 5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

올해 두 번째 ‘빌보드 200’ 1위 포브스 “팝음악계 의미있는 일”

어’(LOVE YOURSELF 轉 Tear)로 ‘빌보드 200’ 정상을 처음 밟은 데 이어 3개월여 만이다. ‘빌보드 200’ 차트는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 다운로드 횟수를 총망라한 판매고를 기반으로 그 주의 가장 인기 있는 앨범 순위를 매긴다. 빌보드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8월 30일까지 한 주 동안 앨범 수 18만5,000점을 달성했으며, 그중 14만1,000점은 실물 앨범 판매량으로 집계됐다. 총점 18만5,000점은 2018년 들어 세 번째로 높은 점수다. 앞서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2월 발매한 ‘맨 오브 더 우즈’(Man of the Woods)가 29만3,000점을, 이리아나 그란데가 최근 발매한 ‘스위트너’(Sweetener)가 23만1,000점을 거뒀다. 아울러 실물 앨범 판매량으로 획득한 14만1,000점 역

시 올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1위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맨 오브 더 우즈’(24만2,000점)였으며 2위는 지난 6월 발매된 션 멘데스의 셀프 타이틀 앨범 ‘션 멘데스’(14만2,000점)였다. 빌보드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를 잇는 방탄소년단 두 번째 1위 앨범으로 이들은 빌보드 1위를 차지한 유일한 K팝 가수일 뿐 아니라 한국 최초로 2개의 1위 앨범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일 그룹이 1년 안에 ‘빌보드 200’을 두 번 석권하기는 2014년 영국 보이그룹 원디렉션 이후 4년 만의 기록이다. ‘빌보드 200’은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 다운로드 횟수를 망라한 판매고를 기반으로 그 주의 가장 인기 있는 앨범 순위를 매긴다. 최신차트는 3일 노

동절 휴일인 관계로 평소보다 하루 늦은 9월 5일 웹사이트에 게재된다. 위신들도 방탄소년단의 미국 ‘빌보드 200’ 1위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며 높게 평가했다. 미국 포브스는 “방탄소년단과 한국 음악계에 큰 중요한 일이 아니라 2010년대 팝 음악계 전체에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한 그룹이 12개월 안에 ‘빌보드 200’ 1위를 두 번 하기는 2014년 영국 그룹 원디렉션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방탄소년단은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 이후 석 달 만에 신보를 냈음에도 성공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중음악 전문가 톨링스턴도 “K팝 그룹 최초로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이 또 새로운 차트 역사를 세웠다”고 보도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LOVE YOURSELF’ 투어를 이어간다.



상류사회, ‘韓 사회 폐부 찢른다’... ‘비밀의 숲’ · ‘라이프’ 잇는 드라마

영화 ‘상류사회’(감독 변희)가 대한민국 상류층의 민낯과 실상을 신랄하게 드러내 이목을 모으고 있다. 최근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는 믿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작품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먼저 지난 해 방송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tvN 드라마 ‘비밀의 숲’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외톨이 검사 황시목의 시선으로 권력층에 만연히 퍼진 부패를 직시하게 하며, 법조계 내부의 비리를 사실감 있게 풀어내 호평 받았다. 이어 7월 방송을 시작한 JTBC 드라마 ‘라이프’는 지키려는 자와 바꾸려는 자의 신념이 병원 안 여러 구상 속에서 충돌하는 의학드라마로, 의료 산업에 대한 의미 있는 비판을 날리며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두 작품에 이어 올해 스크린에서는 영화 ‘상류사회’가 대한민국 상류층의 이중성을 신랄하게 그려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상류사회’는 각자의 욕망으로 얼룩진 부부가 아름답고도 추악한 상류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

이번 작품은 상류층의 삶을 동경하고 쫓아가고자 하는 인물들과 이미 상류사회에 속해있는 인물들이 각자가 지닌 욕망을 위해 서로 얽히고설켜며 만들어내는 드라마로 관심을 집중시킨다. 특히 경제학 교수이자 촉망받는 정치 신인 정태준(박해일 분)과 능력과 야망으로 가득 찬 미술관 부관장 오수연(수애) 부부는 이미 잘 살고 있음에도 더욱 높은 세계로 진입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찢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돈과 예술을 탐닉하는 재벌 한용석(윤재문)과 우아하고 교만한 미술관 관장 이화란(리미란)을 중심으로 한 가진 자 그룹은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예술로 둔갑하는가 하면, 품위 있는 모습 뒤에 행해지는 폭력과 갑질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의 폐부를 찢고 있다. 이처럼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만큼 리얼한 현실을 반영한 ‘상류사회’는 관객들에게 재미는 물론 극장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동시에 선사하고 있다. 영화 ‘상류사회’는 지난 달 29일 개봉해 전국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하나뿐인 내편’ 티저 공개...최수종·유이 ‘눈물 열연’



올 하반기 인방극장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KBS 2TV 새 주말드라마 ‘하나뿐인 내편’(극본 김사경, 연출 홍석규, 제작 DK E&M)이 보는 순간, 눈물샘을 강제 폭발시키는 1차 티저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최수종(강수일 역)·유이(김도란 역)의 눈을 땀 수 없는 명품 눈물열연이 시선을 압도하는 이번 티저 영

상에는 단 40여초 분량의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애절한 부성애와 캐릭터의 진정성을 일체적으로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이러한 눈빛으로 지난날을 회상하는 수일의 모습으로 시작된 영상에는 사랑하는 여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소중한 딸까지 낳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교도소에 수감된 수일의 과거장면이 이어지며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어, 달리는 차창 밖으로 하얗게 눈물을 쏟아내며 걷고 있는 도란을 발견한 수일은 황급히 버스를 세우고 도란의 뒤를 쫓지만, 이내 닿을 듯 닿지 못한 손끝만이 하나뿐인 딸을 향한 애처로운 마음을 대변하며 안타까움에 불을 지핀다. 교도소 복역 중, 도란의 성장과정이 담긴 앨범을 보며 한없는 그리움에 눈물짓는 수일이지만 “난 도란이 아빠가 아니다. 난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죽어도 도란이 내 딸인 거, 그것만은 절대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는 수일의 간절한 부탁과 그런 수일에게 도란의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김동철(이두일 분), 두 사람의 애절한 사연 역시 공감을 증폭시키며 본 방송을 향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제작진은 “‘눈 보고 싶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단 한 사람’

이란 타이틀 문구는 수일·도란 부녀의 관계의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전하며 “명물화된 ‘드라마의 왕’ 최수종과 주말극 퀸 유이의 명품열연이 펼쳐질 ‘하나뿐인 내편’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뿐인 내편’은 28년 만에 나타난 친부로 인해 인생이 꼬여 버린 한 여자와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 단 하나뿐인 내편’을 만나며 삶의 희망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비우나 고우나’, ‘천만번 사랑해’, ‘내사랑 내결’, ‘오자룡이 간다’, ‘불러라 미공아’ 등을 집필한 김사경 작가와 ‘배리는 외박중’, ‘힘내요, 작스터 김’, ‘물드크로스’, ‘완벽한 아내’, ‘탄저리 소녀시대’ 등을 연출한 홍석규 감독이 의기투합했다. 최수종, 유이, 이정우, 나혜미, 윤진아, 박상원, 차화연, 임예진, 진경, 박성훈, 장은우 등이 출연하는 KBS 2TV 새 주말드라마 ‘하나뿐인 내편’은 현재 방영중인 ‘같이 살래요’ 후속으로 오는 15일 첫 방송된다.

백지영, ‘미스터 션샤인’ OST로 음원차트 1위



가수 백지영이 2년만에 참여한 tvN 토일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OST가 음원차트 1위를 기록했다. 9월 2일 오후 6시에 발매된 백지

영의 ‘See You Again’은 3일 오전 앨범, 박스, 뮤직3등의 음원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해 OST 여왕다운 면모를 보였다. 백지영이 부른 ‘See You Again’은 음원 발매 전, 드라마에 삽입되어 시청자들로부터 음원 발매 문의가 쇄도했다. 이후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모으며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백지영 특유의 쓸쓸하고 가슴을

울리는 질은 보이스와 리처드 용재 오닐의 비올라 세션이 더해져, 곡이 가진 슬픈 감정을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 특히 외롭고 공허함 속에서 살아온 한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과 서로를 위해 곁에 있어 주고 싶은 바람을 절절히 담은 하멜리 작가의 가사는 극 중 이병헌과 김태리의 이련한 심정을 대변해주며 시청자들은 물론 리스너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한편 tvN 토일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은 매주 토, 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오늘의 순서 2018년 9월 4일 화요일 (음력 7월 25일)



▶**용띠** 1, 2, 7월생 애정에 너무 빠지지 마라. 잘못하다 늑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 냉정하게 판단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비, 사, 자 성씨는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히 하라. 비상적인 행위는 가정의 꿈을 잃게 만든다.



▶**사띠** 5, 8, 9월생은 ‘수박 겉핥기’식 눈가림은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라. 관대하고 원만한 성격과 갖고 있으나 좀 더 확실한 면을 보이면 존경받는다. 1, 2, 3월생은 파란색으로 나를 나타내라. 동쪽이 길하다.



▶**묘띠** 순조롭게 풀릴 때는 상관없으나 일단 잘 안 풀리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더욱 힘들어진다. 그, 모, 사, 흥 성씨는 힘겹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언행을 함부로 하지 마라. 1, 5, 8, 12월생은 쥐, 원숭이, 돼지띠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라.



▶**진띠** 사람의 걸만 보지 말고 속을 읽으라. 그, 모, 툄 성씨는 사람을 잘 따르고 정직한 성격이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좋으나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에게 얽매이지 마라. 3, 5, 11월생은 귀인을 찾으라. 북, 서쪽에 있다.



▶**용띠** 사, 오, 툄 성씨는 착실하게 노력하면 대성할 수 있으나 이것저것 손대면 여중간한 상태에서 남는 것이 없다. 1, 5, 7, 9월생은 이성 문제나 인간관계 갈등은 대부분 술자리에서 일어나니 언행을 조심하라. 북쪽에서 유혹을 피하라.



▶**진띠** 5, 9, 11월생은 매우 섬세하고 예민하다 보니 마음이 넓지 못하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남을 구속하려고 들지 마라. 비, 사, 오 성씨는 심적 고통이 따르나 더 큰 것을 얻기 위함으로 알라. 노란색, 미색은 불길하다.



▶**말띠** 직장이나 가정에서 내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주위 사람과 협조하면 대성한다. 비, 사, 흥 성씨는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해내는 의지는 찬사를 받을 만하나 대인관계는 원만하지 못하다.



▶**양띠** 자기관리에 신경 써서 주어진 여건하에 실속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2, 4, 5, 9월생은 쌓아 올린 것이 허사가 될 수 있으니 말을 많이 하거나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마라. 나로 인해 울고 웃는 자 있겠다.



▶**원숭이띠**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라. 3, 4, 12월생은 비밀을 지킬 수 없는 성격이어서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겠다. 비, 오, 툄 성씨는 내게 닥친 일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부딪쳐 해결하라.



▶**닭띠** 대인관계에서는 맺고 끊음이 중요하다. 사소한 정에 끌려다 중상모략을 당해 함겨워진다. 5, 7, 9월생은 이것저것 생각하다 성공의 길이 놓여진다. 내 위치를 지켜 남이 우려러 볼 길을 열라. 남, 서쪽이 길하다.



▶**개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진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 1, 6, 12월생은 귀가 얇아 내 의지대로 일 처리하지 못하고 헤매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처지에서 언행을 할 뿐임을 알라. 그, 모, 흥 성씨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다. 검은색을 피하라.



▶**돼지띠** 급격한 생활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마라. 비, 오, 자 성씨는 새로운 인생 향로를 잡으라. 4, 5, 11월생은 내가 마음을 잡지 못하는 동안 자녀 또한 방향하고 있음을 알라. 세상에 내 마음 갖지 않으니 눈을 크게 뜨라.